



고창군, 무사 안녕 기원 동호 풍어제 열어

고창군 해리면 동호 영신당에서 지난달 28일 어업안정과 풍어, 어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개최됐다. 영신당은 구동호마을에서 돌출된 암반지대에 위치해 바다를 향해하는 선박들을 살피고,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표류하지 않도록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제신당이다. 오전 10시 마을주민들은 음식장만과 제례 준비를 시작했으며, 올 한해도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만선이 되기를 기원하며, 어민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동호어촌계 이길연 어촌계장은 “동호에서 열리는 풍어제는 마을 사람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 및 관광객들의 즐거운 체험활동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준비한다.”며 “어업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져 마을이 번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수산물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풍어제를 통해 풍요로운 조업을 기원하며, 고창 어촌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도동동, 남원장애인복지관과 협약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 남원시장에 인종한복지관(관장 임은용)과 협약을 체결하고 도동동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대형 빨랫감도 세탁이 가능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불 빨래 고민을 덜어줌과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서는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의뢰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 이동세탁 차량이 방문해 서비스를 진행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생활실태 점검과 안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은용 복지관 관장은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생활편의 증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년자 도동동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세탁 서비스를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활동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정옥 고창소방서장, 호텔 공사현장 방문

임정옥 고창소방서장은 최근 고창군 석정로에 위치한 호텔 공사 현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방문 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호텔 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호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안전 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 설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상구 및 안전 통로 유지·관리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임정옥 고창소방서장은 “부산에서의 화재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모든 공사 관계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창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통해 화재 예방에 주력하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꿈을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순창 출신 강문경, 국가대표 트로트 가수로 선발… 현역가왕 2'에서 7인에 이름 올려

우리 고장 전북 순창이 낳은 트로트 가수 강문경(40)이 MBN 개국 30주년 특별기획 ‘현역가왕 2'에서 국가대표 7인 중 한 명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달 28일 밤 생방송으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강문경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아쉽게도 우승은 놓쳤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7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2025 한일 가왕전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이제 그는 K-트로트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또 한 번의 도전을 앞두고 있다. 강문경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85년 전북 순창에서 중화요리 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그는 판소리를 전공하며 중앙대 국악학과에 입학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무명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걸어야 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권유로 명창 조봉달에게 17년간 판소리를 배운 그는, 혼자 버스를 타고 걸어 다니며 소리를 익혔고, 사춘기 시절에도 스승과 함께 산에서 극한의 훈련을 하며 실력을 쌓았다. 그 결과 16세의 어린 나이에 ‘수궁가’를 완창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2014년 ‘아버지의 강’으로 데뷔했지만, 무명 시절은 길고도 험난했다. 하지만 그는 2020년 SBS ‘트롯신이 떴다 2'에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구성진 꺾기로 전 국민을 사로잡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강문경의 무대는 “뽕 1억 원 중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스승이자 멘토인 가수 서주경에게 전달하는 의리를 보여 감동을 더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 제5대 진안군의료원장에 조백환 재임명

조백환 4대 진안군의료원장이 제5대 진안군의료원장으로 재임명됐다. 군은 3년으로 정해진 의료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및 추천을 받았다. 또한 진안군의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적격 통보를 받아 지난달 28일 진안군 수실에서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조백환 원장은 2016년 첫 임명된 후 3차례 연임에 성공했으며 이번 임기는 2028년 3월 1일까지다. 조 원장은 전남대학교에서 의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과 암센터, 이식센터의 초대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임기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검진분야 최우수기관, 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B등급 획득’ 등 진안군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왔다. 조백환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공공임상 교수제 등 의료공백 없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전북자치도 의료취약지역인 동북부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협력적인 책임경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한숙경 교육장 부임… 3·1운동 기념식 참석

고창교육지원청 한숙경 교육장은 3월 1일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3.1운동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육장으로서는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한숙경 교육장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한 뒤, 2025년 3월 1일자로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했다. 한숙경 교육장은 올해 고창 지역 주요 교육정책으로 △기초학력 향상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학력신장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력신장을 위해 토론과 질문수업 활성화, AI미래교육 아카데미 운영, 창의예술문화공간 운영, 진로교육 활성화, 대학진학지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환경·생태전환 교육, 고창 거점돌봄센터 운영, 메타버스 활용 상담 등을 통해 책임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숙경 교육장은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배움이 즐거운 교실,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왕정동 지사협, 민관협력 방안 논의

남원시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경진 왕정동장, 김종숙 민간위원장)는 지난달 28일 2025년 제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계획,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방안, 복지특화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의체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1인가구 건강검료 지원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밀반찬 지원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경진 왕정동장은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 시니어클럽과 지역치안 업무협약

김제경찰서(서장 백영석)는 김제시 시니어클럽(관장 천경희)과 지난해 8월 경찰서-시니어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후 지난 1월부터 약 10개월 간 본격적인 치안지킴이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시니어치안지킴이는 시행 2개월째를 맞고 있으며 시니어 치안지킴이가 지역 치안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치안지킴이가 순찰활동을 하면서 취약한 장소를 범죄예방진단팀에 점검시 통보하여 조치 예정 중에 있으며 금융기관 등 진출하여 최근 보이소피싱사기를 설명하고 유사사태나 긴급한 내용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니어 치안지킴이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관내 시내권 지구대 등 배치되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및 활동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문화원, 제21대 박정우 원장 선출

임실문화원이 지난달 27일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21대 임실문화원장 선거에서 박정우 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과 회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 역대 최대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회를 이뤘다. 이진관 임실부군수는 “임실문화원 발전에 앞장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임실문화원이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결산 승인과 2025년도 예산안, 임실문화원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회원회비 인상 건 등을 상정, 회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신임 박 원장은 2023년 부원장으로서 관한대행을 맡아 왔으며, 이날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 임기 4년간을 수행하게 됐다. 박 원장은 지난해 임실문화원 60주년 기념 ‘임실문화원 60년사’를 발간했고, 어린이를 위한 ‘꿈의 사물놀이단’ 창단과 어르신 행복나눔 사업 등을 수행했다. 또한 국비와 군비 등 연간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를 성공적으로 운영,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박정우 문화원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임실문화원 회원 가족들이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박정우원장



남원농협, 한전 남원지사 등과 기업-농촌이음 협약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지사장 김종환)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농촌 전력 제고를 위한 기업-농촌이음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농촌 재생(임산물, 마을 가꾸기 등) △지역 농촌자원과 연계, 소비유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 기관의 고유 역량을 활용한 지역맞춤 교류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7일, 흥부주유소대표(김종열)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아영면의 복지하브와 연합모금사업은 지역 중심의 민간 자원 발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모금 사업으로, 마련된 후원금은 지역에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 특화사업에 사용된다. 김종열 대표는 “앞으로도 상호협력 흥부 정신을 실천하는 주유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새농민회 200만원 이웃돕기성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농민회(회장 정성우)가 지난달 28일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새농민회의 지역 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성금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새농민회 정성우 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